

K리거 옥석 가린다...홍명보호, A매치 데뷔 릴레이는 쪽~

내일 동아시아컵 '67년 간 무패' 홍콩 상대 새 얼굴·전술 테스트 15일 일본과 경기... 'A매치 데뷔전 4골' 저메인과의 승부 관전

홍명보호가 최약체 홍콩을 상대로 두 번째 '태극전사 후보생'을 테스트한다.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11일 오후 8시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홍콩과 2025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안컵) 남자부 2차전을 치른다.

일본에서 열린 2022년 대회에서 일본에 이어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던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6년 만이자 통산 6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7일 열린 중국과 첫판에선 3-0 완승을 거두며 가뿐하게 대회를 시작했다.

대회 특성상 유럽과 같이 선수단을 구성한 가운데, 그간 대표팀에서 기회를 많이 얻지 못했거나 이번에 처음 대표팀에 뽑힌 K리그의 유망주들이 기대만큼 활약해준 결과다.

홍명보 감독은 중국전에서 김봉수(대전), 이호재(포항), 강상운(전북), 모재현, 서민우(이상 강원), 이승원(김천) 등 6명의 선수에게 A매치 데뷔 기회를 줬다.

홍명은 중국보다 약체로 평가되기에 홍명보 감독은 이번에도 '새 얼굴'을 대거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변순수(광주), 김태현(가시마), 서명관, 조현택(이상 울산), 김태현(전북), 정승원(서울), 김동현(인천) 등이 아직 A매치 경험이 없다.

중국전에서 그간 잘 쓰지 않던 '스리백 카드'를

꺼내 들었던 홍명보 감독이 홍콩전에서 어떤 전술 실험을 이어갈지도 관전 요소다.

한국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이 참가국 중 가장 낮은 153위(한국 23위)인 홍콩도 잡아 2연승을 거둔 뒤 '숙적' 일본을 상대로 15일 치르는 최종전에서 이겨야 우승을 달성할 수 있을 거로 보인다.

한국-일본과 중국-홍콩 간에 전력 차이가 커 마지막 한일전 결과에 따라 우승팀이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일본은 8일 치른 홍콩과 1차전에서 4골을 넣은 저메인 료를 앞세워 6-1로 크게 이겼다.

한국과 일본이 최종전에서 90분 동안 승부를 가리지 못하면 골 득실을 따져 우승팀을 정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한국으로서는 홍콩전에서 최대한 큰 점수 차로 이겨야 우승 경쟁에서 유리해진다.

한국은 홍콩을 상대로 22승 5무 2패의 압도적인 전적을 기록 중이다.

마지막으로 패배한 것은 1958년으로 67년 전 일이다.

1972년 메르데카컵에서 0-0 무승부를 거둔 뒤로는 한국이 14연승을 달리고 있다.

한국이 홍콩과 경기에서 실점한 것은 3-1로 이긴 2003년 동아시아컵 경기에서다. 이후 치른 3차례 맞대결에서 한국은 늘 다득점, 무실점 승리를 거뒀다.



지난 7일 경기도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년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안컵) 남자부 1차전 한국과 중국의 경기에서 한국 이호재(왼쪽)가 슈팅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도청 근대 5종팀, 실업연맹회장배 전국대회 '금빛 질주'

김영하 4종 개인전·단체전 금 등

전남도청 근대 5종팀이 '제12회 한국실업연맹회장배 전국근대5종경기대회'에서 금빛 활약을 선보였다.

전남도청은 최근 전북 완주에서 끝난 대회에서 3개의 금메달과 1개의 은메달을 차지했다.

남자 일반부 4종 개인전에 나선 입단 1년 차 김영하는 레이저런(641점)과 수영(303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고, 펜싱(9위) 220점을 더해 종합점수 1164점을 기록했다. 김영하는 1149점을 기록한 완주군청 김우철을 따돌리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김영하는 단체전에서도 금메달을 휩쓸었다.

김영하는 박상구, 이동기와 남자 일반부 4종 단체전에서 호흡을 맞춰 수영 860점(2위), 펜싱 680점(1위), 레이저런 1865점(1위)을 만들었다. 전남도청은 총점 3405점으로 충남도청(3323점)을 따돌리고 1위에 올랐다.

여자 일반부 근대4종 단체전에서도 전남도청 김보경, 공화영, 주유정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들은 수영 773점, 펜싱 600점, 레이저런 1457점 등 최종합계 2860점을 기록해 김은옥·김소원이 출전한 충남도청(1995점)에 앞서면서 금메달을 더했다.

김영하와 박상구는 남자 일반부 5종 릴레이에서 은메달을 추가했다.

이들은 수영 318점, 펜싱 206점, 장애물 경기 337점, 레이저런 510점 등 총점 1371점으로 1402점의 경기도청에 이어 2위에 올랐다.

3위는 방준서와 전용태가 호흡을 맞춘 광주시청팀(총점 1246)이 기록했다. 전용태는 남자 일반부 5종 개인전에서는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섰다.

전용태는 수영 305점(3위), 펜싱 235점(2위), 장애물 경기 360점(8위), 레이저런 626점(2위) 등 1526점을 얻어 1513점을 획득한 경산시청이



제12회 한국실업연맹회장배 전국근대5종경기대회에서 3개의 금메달과 1개의 은메달을 수확한 전남도청 근대5종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주전에 앞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또 광주팀인 송학도건은 금메달 1개와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송학도건의 조하은과 서지은은 5종 단체전에서 수영 515점(3위), 펜싱 410점(4위), 장애물 경기 587점(1위), 레이저런 1040점(2위) 등 총점 2552점을 획득하면서 완주군청에 2점 차로 앞서

우승을 차지했다.

두 사람은 4종 릴레이에서는 대구시청(952점), 완주군청(935점)에 이어 3위(920점)에 올랐다.

조하은은 5종 개인전에서는 1288점을 기록, 경기도청 김선우(1364점), 완주군청 김예나(1304점)에 이어 동메달을 추가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아사니, K리그1 '6월의 선수' 후보에

강상운·콤포뇨·이승원과 경쟁

광주FC의 아사니가 'EA SPORTS 이달의 선수상' 수상을 노린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6월에 진행된 K리그1 18라운드부터 21라운드까지 4경기를 평가해 아사니, 강상운·콤포뇨(이상 전북), 이승원(김천)을 '이달의 선수상' 후보로 선정했다.

아사니는 6월 2골 2도움을 기록하면서 광주 승점 사냥에 앞장섰다. 그는 20라운드 대전전과 21라운드 안양전에서 1골 1도움의 활약을 펼치면서 지난 2023시즌 2월 이달의선수상 후보에 이어 다시 한번 이름을 올렸다. 아사니는 당시 울산 소속이었던 대전 주민규에 0.39%차로 밀려 수상에는 실패했다.

지난해 수원FC에서 임대 선수로 활약하다가 전북으로 복귀해 팀 선두 질주에 기여하고 있는 강상운도 후보에 포함됐다. 2022시즌 준프로 계약으로 프로 무대에 오른 강상운의 첫 후보 선정이다.

그는 19라운드 수원FC전에서 1도움의 활약으로 3-2 승리를 이끌며 라운드 MVP가 됐다.

올 시즌 전북 유니폼을 입고 K리그 무대에 도전

장을 내민 콤포뇨는 8골을 터트리면서 뜨거운 화력을 보여주고 있다. 19라운드 수원FC와의 경기에서 동점골을 기록한 그는 21라운드 김천전에서는 멀티골을 장식하면서 두 차례 베스트11에 올랐다. 21라운드 MVP에도 등극했다.

3년 차 김천상무 이승원도 올 시즌 21경기 전 경기에서 출전해 1골 3도움을 올리며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

6월 4경기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한 이승원은 두 차례 라운드 베스트11에 선정됐고 '이달의 영플레이어 상' 수상 영예도 안았다. 이달의선수상 후보 선정은 처음이다.

연맹 TSG기술위원회의 1차 투표(60%)를 통해 선정된 4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K리그 팬 투표(25%)가 진행된다. 연맹은 EA FC 온라인 유저 투표(15%) 결과까지 합산해 수상자를 결정한다.

'이달의선수상 수상자'에게는 트로피가 주어지며, 해당 시즌 유니폼에 이달의선수상 패치가 부착된다.

한편 팬 투표는 K리그 공식 어플리케이션 'Kick'을 통해 참가할 수 있다. /김여울 기자 wool@

완도서 제주·호남권 장애인체육회 화합 다진다

내일까지 교류전... 체험행사 진행도

완도에서 제주·호남권 장애인체육회의 화합을 다지는 '2025 제주-호남권 장애인체육회 교류전'이 열린다.

10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이번 교류전에는 전남도, 광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4개 시도 장애인체육회 임직원 120명이 참가한다.

참가자들은 10일에는 좌식배구와 명량운동회

등 체육활동을 하면서 화합을 다진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실내에서 체육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11일에는 '완도방문해'를 맞아 완도의 문화와 자연을 경험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참가자들은 완도해양치유센터 체험을 비롯해, 완도수목원과 완도타워 등 지역 명소를 둘러볼 예정이다.

또 각 시도 장애인체육회 간 정보 교류 시간을 갖고 네트워크 강화, 지역사회의 연계 확대 등 장애인체육 저변 확대와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시간을 담다

조선아

Choo Sun A Solo Exhibition

광주시립창극단 특별기획공연 '풍류 in 광주'

일시 / 장소 : 2025-07-12(토) 11:00, 13:00 / 북구 문화근린공원 2025-08-02(토) 13:00, 15:00 / 첨단 국립광주과학관 2025-08-03(일) 13:00, 15:00 / 첨단 국립광주과학관
문의 : 062-526-0363
*우천 시 야외공연은 취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GAC 전시지원 공모전시

조선아 개인전 : 시간을 담다

일시 : 2025-07-11(금)-2025-08-10(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